

'민중총궐기 대회'의 팩트는 어떻게 뉴스가 되었는가?

- 집회를 바라보는 방송사별 보도 차이 -

■ 들어가며

- 지난 11월 14일 서울 시청 광장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주최로 노동 개혁과 국정교과서 반대, 농민 생존권 등을 주장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1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6만 8000명이 참가했으며 이는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의 대규모 집회였다.
- 집회 도중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60대 집회 참가자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 과정이 과잉진압인지 폭력집회인지에 대한 각 정당과 누리꾼들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폭력집회를 엄단한다며 주요 주최 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압박을 가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 들어갔다. 한편 여당은 불법 폭력집회를 엄중히 처단해야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방송 뉴스가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방송 뉴스의 채널별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약 9일간의 지상파와 종편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종합메인뉴스 중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보도
- 2015년 11월 14일 ~ 11월 22일 (9일간)

	KBS 뉴스9	MBC 뉴스 데스크	SBS 8뉴스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JTBC 뉴스룸	MBN 뉴스8	합계
건수	10 (6.6)	6 (3.9)	5 (3.2)	50 (33.1)	38 (25.1)	25 (16.5)	17 (11.2)	151 (100.0)
(%)	21 (13.8)			130 (86.2)				

-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9일간 지상파와 종편4사의 저녁 종합 뉴스의 관련 보도 건수는 총 151건이었다. 보도건수에서 가장 눈에 주목할 점은 각 방송사별 보도 건수의 차이였다. 먼저 가장 적은 보도건수를 기록한 곳은 SBS로 단 5건(3.2%)에 불과했다. 반면에 가장 많은 보도건수를 기록한 곳은 TV조선으로 10배에 해당하는 50건의 보도 건수(33.1%)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는 SBS의 5건에 이어 MBC가 6건, KBS가 10건 등으로 총 21건(13.8%)을 기록해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가장 많이 보도한 TV조선은 집회 당일인 11월 14일에만 11건의 뉴스 쪽지를 관련 아이টে으로 배치하고 15일 9건, 16일과 17일에도 각각 7건의 보도건수를 배치하고 있었다. 채널A 역시 14일, 15일에 각 5건, 16일 4건 등으로 중점적으로 관련 뉴스를 배치하며 총 38건(25.1%)를 보도하고 있었다.
- 관련 사건을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편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지상파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 뉴스 중요도 : 프랑스 테러보다 주요하게 다루는 종편3사

-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었던 날은 공교롭게도 프랑스 테러가 있던 다음 날이었다.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 테러로 인해 약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 35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기습적인 테러로 전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국내의 주요 사건으로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각 방송사의 첫 뉴스의 제목과 배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방송사	보도순서	뉴스 제목
KBS 뉴스9	14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격렬 시위에 부상자속출
MBC 뉴스데스크	14	서울 도심서 '8만 명 운집' 대규모 집회, 경찰과 충돌
SBS 8뉴스	9	도심서 대규모 집회, 차벽 저지 '충돌'...부상자 속출
JTBC 뉴스룸	10	서울 도심 10만 명 대규모 집회...시위대-경찰 '충돌'
MBN 뉴스8	1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시위 격화
TV조선 뉴스쇼판	1	시위대 운집에 광화문은 '아수라장'...불법 폭력 난무
채널A 종합뉴스	1	최대 규모 폭력 집회된 '민중총궐기'

* 뉴스제목은 인터넷 다시보기 제목임.

- 방송 뉴스의 보도 순서는 뉴스 중요도와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3사는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뉴스를 모두 첫 번째 뉴스 아이템으로 배치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반면에 지상파를 비롯한 JTBC는 관련 뉴스를 각각 9번, 10번, 14번 등 뉴스 순서 중후반에 배치하며 프랑스 테러 사건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 종편 3사는 프랑스 테러 사건을 제쳐놓고 관련 사건을 첫 번째 뉴스 꼭지로 선정하며 뉴스 제목으로는 시위 격화, 아수라장, 불법폭력, 폭력 집회 등으로 관련 사건을 프레임 짓고 있었다.

■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 프레임

- 위의 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관련 사건을 다루는 방송 뉴스의 뉴스제목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지칭하며 '시위'와 '집회' 등, 방송사별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회 (集會) [지회] [명사]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

시위 (示威) [시 : 위] [명사] 1.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 2. [같은 말] 시위운동(많은 사람)

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

- 즉 집회와 시위는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시위라는 단어에는 위력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어있다. 일반적으로도 시위는 집회보다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이다. 각 방송사의 뉴스 제목이 관련 사건을 두 단어 중 어떤 단어로 지칭하는지 전체 뉴스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다.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 대회 등 직접 명칭을 밝힌 지칭은 집회로 분류하였다.

	KBS 뉴스9	MBC 뉴스 데스크	SBS 8뉴스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JTBC 뉴스룸	MBN 뉴스8	합계
지칭 없음	3	1	3	23	18	15	11	74
시위	6	3	0	19	16	2	2	48
집회	0	2	2	8	4	6	2	24
모두 사용	1	0	0	0	0	2	2	5
지칭 총계	7	5	2	27	20	10	6	77
총계	10	6	5	50	38	25	17	151

* 뉴스제목은 인터넷 다시보기 제목임.

- 뉴스의 제목은 관련 사건을 주요 단어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지 관점을 보여준다. 관련 사건의 지칭이 없는 74건의 뉴스를 제외하고 총 77건의 뉴스 중 약 48건(61.5%)의 뉴스 제목은 관련 사건을 시위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 한편 각 방송사에서는 시위와 집회라는 단어를 한 뉴스 제목에 모두 사용하는 등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보도 건수가 적긴 하지만 KBS는 단 한건의 뉴스 제목도 집회라고 지칭하지 않았고 SBS는 단 한건의 뉴스 제목도 시위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사건을 지칭하는 뉴스 제목 중 TV조선은 시위라는 표현을 19건, 집회라는 표현을 8건에 사용하고 채널A는 시위는 16건 집회는 4건 사용하며 시위에 편중된 관점으로 프레임하고 있었다.

- 다만 집회라는 표현에도 폭력 집회, 불법 집회 등 부정적인 표현이 뉴스 제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민중총궐기 대회에 폭력 도구 다수 동원? (채널A, 11. 15)

폭력·불법·무질서...서울 대규모 집회 '무법천지' (TV조선, 11. 16)

과격·폭력집회 혐의 민노총 등12곳 압수수색 (MBN, 11. 21)

■ 사건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나? : 폭력적 현장 분위기와 부정적 입장의 강조

- 앞서 지적한대로 민중총궐기 대회 중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60대 집회 참가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방송 뉴스는 폭력적인 현장 분위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집회참가자 측에 책임몰이를 하는 모양새였다.

시위대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에 나서면서 저지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경찰 버스를 부수니다. 밧줄을 연결해 버스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경찰도 살수차와 최루액을 동원해 저지에 나섭니다.(KBS. 11. 14.)

민중 총궐기대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경찰 버스를 부수고 시위대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정까지 이어진 시위는 '햇불 행진'으로 이어졌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게 햇불도 던졌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시위에 부서진 경찰 버스는 처참했습니다. 유리창들은 대부분 산산조각 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버스 앞부분이 부서졌습니다.(TV조선, 11. 15.)

- 물리적 충돌과정의 직접적 원인이 된 차벽에 대한 물대포와 최루액 등 경찰의 폭력 진압과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중태에 빠진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송사는 JTBC가 유일했다.

오후 4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지만, 차벽을 설치한 경찰이 이를 막아하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들은 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 행진을 이어가려 했고, 경찰은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리며 이를 저지했습니다.(JTBC, 11. 14.)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줄을 묶어 당깁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69살 백모 씨입니다. 의식을 잃은 백씨는 4시간 동안 뇌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JTBC, 11. 15.)

-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이 같은 물리적 충돌에 대해 과잉진압인지 폭력 집회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송뉴스는 대체로 이를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부정적 입장만을 인용해서 받아쓰기식의 형태로 쏟아내고 있었다. 다만 일부 논란 속에 양측의 입장을 직접 인용하는 보도도 더러 존재했다.

아수라장이 된 차량 내부 역시 어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완파된 3대를 포함해 총 50여 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됐습니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과격 시위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채널A, 11. 15.)

인터뷰 : 강신명 / 경찰청장-“(의도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겠다고 작심한 거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폭력 시위가 기획되고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집회 현장에 반입이 금지된 쇠 파이프와 밧줄 등을 제시했습니다. (MBN, 11. 17.)

지난 14일 '광화문 총궐기 폭력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2개의 영상인데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불법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영상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문화를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는 누리꾼들이 맞섰습니다.(KBS, 11. 17.)

- 이 가운데 관련 뉴스 중 북한 끌어 들이기식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뉴스도 존재했다. TV 조선은 북이 민중총궐기 대회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2건에 걸쳐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알리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며 "각계 민중은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11. 15.)

■ 사건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나? : 집회 목적이 전무한 ‘집회 보도’

- 한편 물리적 충돌의 원인이 된 주요 사건인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분석하거나 이들의 주장을 주요 주제로 다룬 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집회의 주요 주장도 다음과 같이 단순 리포트만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더러는 확대 왜곡하는 보도도 존재했다.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추산 6만 8천여 명,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KBS, 11. 15.)

참가단체들과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 실업과 빈민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JTBC, 11. 14.)

노동계에선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고, 농민들은 쌀을 바닥에 뿌리거나 쌀포대를 쓰고 정부의 농산물 정책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TV조선, 11. 15.)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무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11. 15.)

■ 분석에 대한 함의

- 집회를 바라보는 방송사별의 관점차이는 보도 건수, 뉴스 배치 순서, 뉴스 제목에서 드러난 프레임, 주요 입장 인용 등을 통해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 세상일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미국 백인 청년이 ‘흑인이 사는 슬럼가는 더럽고 불쾌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노예가 되어 미국으로 강제이주 당해온 역사와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위상 등 맥락에 대한 배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 민중총궐기 대회를 다루는 언론보도에는 집회의 물리적 충돌과정이라는 팩트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벗어난 가치중립적인 팩트는 없다. 왜 그들이 모여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는지 이유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보여주는 뉴스는 없고 집회에서 벌어진 충돌 과정만 팩트라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 현재 우리 언론보도는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 특정한 입장에 치우친 일방적인 팩트만을 전달하는데 치우쳐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